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0(소적동 70)
70 Sogyok-dong Jongno-gu Seoul,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소호와 해강의 난죽

2012.1.11 - 2012.2.19

학고재 갤러리 본관

1. 전시개요

제 목 : 소호(小湖)와 해강(海岡)의 난죽(蘭竹)
일 시 : 2012년 1월 11일 - 2월 19일 (40일간)
참여작가 : 소호 김응원(小湖 金應元),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출 품 작 : 소호 20점, 해강 13점, 합작품 1점

2. 기획의도

전시컨셉

소호와 해강의 난죽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대기 서화의 의미
난죽(蘭竹), 지식인의 표상
개화기의 새로운 미학

기획의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운조화를 다스리는 흑룡의 해입니다. 학고재는 올해를 여는 전시로 ‘소호와 해강의 난죽’ 전을 마련했습니다. 소호 김응원(小湖 金應元, 1855-1921)은 예서, 행서에 뛰어났고, 대원군의 석파란을 계승하여 ‘소호란(小湖蘭)’으로 일컬어지는 묵란의 새 경지를 연 작가입니다.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1868-1933)은 조선시대 묵죽을 발전시켜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였고, 1915년 서화연구회를 창설하여 현대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명은 아직까지 인색했습니다. 학고재는 앞으로 이들의 새로운 자료를 찾고 조명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이 그 첫 전시입니다.

난(蘭)은 깊은 숲속에 나서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향기를 뿜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곤궁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도를 닦고 덕을 세우는 군자의 모습과 닮았다 하여 예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철 푸름을 유지하여 군자의 절개에 비유되는 죽(竹)은 요즈음처럼 세한의 계절에 그 변하지 않는 가치가 더욱 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죽에는 죽보평안(竹報平安)이라 하여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학고재의 난죽전과 함께 금년 내내 난향처럼 향기롭고, 대바람처럼 평안하시길 빕니다.

3. 전시내용

김응원과 김규진의 난죽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대기 서화의 가치와 의미

우리의 전통미술에서 한국현대미술의 뿌리 찾기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고재는 2012년 첫 전시로, 한국 근대서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작가 소호 김응원과 해강 김규진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근대기 예술가 가운데 난(蘭)과 죽(竹)에서 최고봉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이나, 아직까지도 전시를 통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일이 없다. 특히, 김응원의 경우에는 그 예술적 성취에 비해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두 서화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사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지점인데도 여전히 연구와 관심이 미흡한 근대기의 예술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학고재가 2009년 처음 시작한 ‘한국근대서화의 재발견’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두 사람은 서화에 능한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했지만, 격동의 시대에 서화학교 창설에 힘쓰는 등 교육문제와 더불어 전통의 현대화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물들이다. 본 전시는 두 사람의 작품을 통해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대세에 따라 개화기에 들어온 근대서구미술과 서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간 선구자들의 실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매나 전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중국, 일본의 자국 근대기 예술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근대기 예술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학고재는 근대를 재조명하는 전시들을 통해 근대서화의 양식과 그에 깃든 시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이 서양미술의 아류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 나가면서, 동시대 한국미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학고재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각 작가의 연구 카탈로그를 발행하는 등, 근대기 작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난죽(蘭竹), 지식인의 표상

예부터 군자의 품성이라고 할 법한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사군자(四君子)라고 불린 매란국죽(梅蘭菊竹)은 선비정신을 상징했다. 그 가운데에도 난은 중용의 도를 지키는 군자의 품성을 상징한다. 문향십리(聞香十里)라 하여, 산중에서 비와 이슬을 받아 살면서 수려한 잎에 고운 꽃을 피우는데 그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식물이다. 바람과 물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도 지나친 것은 꺼리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난의 생태적 특성에서 옛 문인들은 산속에 홀로 피어서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는 향기로운 삶이 군자의 모습과 같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나무는 곧게 자라 휘어진다 해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직한 특징이 있다. 속은 비어 넉넉하고, 한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푸른 잎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곧게 뻗은 모습이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군자의 삶을 상징한다.

사군자는 근대에 들어 19세기부터 일어났던 문인화 부흥에 힘입어 화단의 주류로 떠오르며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조선인의 고유 정신과 회화 기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화목으로 자리 잡았다. 19세기 사군자는 서예와 회화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예의 연장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각각의 식물이 갖는 전통적인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도 했다. 또는 그림으로 들어가는 입문과정으로 폼하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사군자만큼 대상의 의미 상징을 중요시하는 동양회화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간결한 구성으로 먹과 여백이 주는 흑백의 묘미를 살리면서 동양회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분야도 없다. 사군자는 위상의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소재의 상징성, 사군자화의 역사성, 수묵의 흑백이 주는 현대적 조형성 등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사군자화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식물이 있기도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매죽(梅竹)으로 사군자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난죽(蘭竹)으로 옮겨갔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도 난죽이 많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군자 전문화가는 일제강점기에 대거 등장했을 뿐 아니라 작품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그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군자의 표상’이 그만큼 절실한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태도, 전체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접을 줄 아는 도량 등 사군자가 상징하는 군자의 덕성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오늘날에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군자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다.

개화기의 새로운 미학

개화기의 서화는 일제의 강점에 따라 국망의 현실에서 민족미술과 근대예술로서의 각성과 함께 새로운 미학을 본격적으로 추구한다. 1910년대 사회의 발전을 민족문화의 향상과 정신문명 발전의 동력으로 보았던 문화주의 예술론을 기반으로 하여, 서화는 청산해야 할 봉건적 양반문화의 소산물이라 아니라 계승해야 할 민족미술로 그 의미를 정립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1911년 윤영기가 주도하여 서화 동조조직인 ‘경성서화미술원’이 결성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12년에는 안중식, 조석진 김응원이 왕가의 후원을 받아 서화미술회를 설립했다. 청년 서화가 양성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서화미술회는 “앞으로 서화의 발전이 날마다 왕성하여 무지개와 달이 광채를 발하듯이 우리나라가 다시 밝아지고 다른 나라와 높이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세운다고 그 뜻을 밝혔다. 서화강습소의 성격을 지니기도 했던 이러한 서화조직은 1915년과 1921년에 김규진과 양기훈의 제자인 김유택이 서화연구회와 서화지남소란 이름으로 소공동과 삼청동에 설

립하기도 했다. 당시 서화인들은 1920년대부터 이도영 주도로 서화협회전이 매년 개최하였고, 서화협회보를 발간하면서 민족미술로서의 발전과 함께 근대미술로서의 자각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서화와 미술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서화의 발전과 동서미술의 연구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양자의 융합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서화를 미술로 바라보기 위한 새로운 미학을 세워나가는 시도였다.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국민국가 수립 기획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도급 인사와 문화 지식인들이 민족적 발전과 실력 양성을 위해 정신문명인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서화가들은 개화기 이래 조선 말기의 사의적(寫意的) 경향과 청 말의 상해파 화풍, 일본의 화풍(和風) 수묵화가 혼재된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시대의 서화에 격변의 시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주제의식에서의 변화는 없었으나, 동아시아 화풍의 종합 내지는 융합을 통해 근대미술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화기를 포함한 근대기의 서화는 조선시대 서화의 쇠퇴 현상이 아니라 신구화도와 동서미술이 착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개량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다. 근대적인 문화주의 예술로의 개량을 모색하면서 서구의 물질문화에 대한 동양 정신문화의 우월감을 토대로 동아시아의 수묵화풍을 중심으로 결합을 시도하여 ‘동도의 꽃’을 새롭게 피운 것이다. 필묵의 사의성(寫意性)과 함께 시각예술로서의 미려한 의장성(意匠性)을 추구했는가 하면, 붓질의 기세보다는 붓자국 효과에 더 치중했으며, 좀 더 크게 화면을 운영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면서 특유의 시대양식을 수립했다.

4. 작품세계

소원 김응원의 묵란

난은 조선 초기 주로 왕공사대부들이 간혹 그렸고 18세기 이후 널리 유행했다. 18세기에는 문인화가 강세황이나 이인상, 임희지 등이 유명하고, 19세기에는 추사 김정희, 석파 이하응이 묵란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하응의 난법에 강한 영향을 받은 소호 김응원은 당시 이하응에게 들어온 그림 청탁을 대신해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하응과 유사한 화풍을 보인다. 그러나 김응원은 석파란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킨 새로운 구도법을 사용하였다. 난엽은 침예하고, 동세는 활달하여 그만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대원군이 추사의 난법인 사의란(寫意蘭)을 주로 다루었던데 반해 소호는 사의란(寫意蘭)과 사생란(寫生蘭)을 겸하는 중간입장을 취했다.

그는 석란도 형식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난엽의 필치가 이하응에 비해 가늘고 단아하며 경미한 경향을 보인다. 묵법에 있어서도 이하응은 먹의 농담에 변화를 주어 원근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데 반해 김응원은 난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묵색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김응원의 난은 후에 ‘소호란’이라고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후대의 묵란 화풍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강 김규진의 묵죽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문인들과 승려화가가 그렸던 묵죽화는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사랑받았다. 강세황, 이정, 신위, 유덕장 등이 묵죽에 뛰어났고, 근대기에도 이름을 날린 화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근대의 묵죽화는 이전 시기의 묵죽화풍을 계승하면서도 청대 묵죽화풍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일면 감각적이고 장식적인 화풍을 형성하였다. 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화가가 김규진이고, 현재까지도 이들 묵죽법의 영향이 지대하다.

그는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나무를 잘 그렸는데 그 가운데에도 특히 굵은 통죽에 빼어났다. 그로 인해 근대화단에 통죽이 크게 유행했을 만큼, 김규진은 당대화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묵죽과는 다른 구성, 기법 등이 근대 화가들을 매료시켰다.

해강의 묵죽은 굵은 통죽의 중간 부분과 바람에 나부끼는 잎을 배합해서 특수한 화면효과를 내는 특징을 보인다. 줄기는 중간먹으로 그린 후 농묵의 가느다란 선으로 죽간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러한 김규진의 묵죽은 조선시대 문인화가들의 묵죽에서 볼 수 있는 기세나 아취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을 준다고 평가받는다. 한쪽으로 날리는 짧은 댓잎으로 세찬 바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그의 기법도 이후 화가들에게 폭넓게 영향을 미쳐 근현대 풍죽에서 그 기법을 흔히 볼 수 있다.

해강의 화풍은 젊은 시절 죽사(竹士)라는 호를 사용할 만큼 대나무에 빼어났던 이응노에게 계승된다. 김규진이 보여주었던 서화의 현대화 노력이 고암 이응노에게 이어진 셈이다.

5. 작가소개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1868(고종 5) - 1933

서화가. 본관 남평(南平), 자 용삼(容三), 호 해강(海岡). 백운거사(白雲居士), 취옹(醉翁), 만이천봉주인(萬二千峰主人), 동해어부(東海漁夫), 지공학인(至空學人), 지창노초(至窓老樵), 수정도인(守靜道人), 석전경수(石田耕叟), 무기옹(無己翁), 청허재주인(淸虛齋主人), 삼각산인(三角山人), 포옹(圃翁), 동교(東橋) 등. 시종원 부경 김기범(金起範)의 아들로 평남 중화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외삼촌인 이소남(李小南)에게 글씨를 배우고 장인인 이희수(李喜秀)에게 서예를 배웠다.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885년부터 8년간 청나라에, 1902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머물며 그 곳의 서화를 접할 기회를 가졌다. 이후 1915년에 서화연구회를 창설하여 문인화, 서화, 사군자 등을 가르쳐 후진 양성에 나섰고, 이때 서화교습용 교과서로서 『해강난죽보(海岡蘭竹譜)』를 발간하여 당대 묵죽과 묵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를 모두 잘 썼고, 금강산 바위의 ‘미륵불(彌勒佛)’, ‘천하기절(天下奇節) 등의 대자(大字)가 유명하다. 영친왕 이은에게 서법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림에서는 산수화, 화조화, 사군자를 즐겼으며, 특히 묵죽도가 절묘하였다. 사진술을 도입하여 천연당 사진관을 개업했고, 어전(御前)사진사가 되었다.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1855(철종 6)-1921

서화가. 호 小湖

1911년에 근대적 미술학원으로 경성서화미술회 강습소가 개설될 때 조석진, 안중식과 함께 지도교사진에 들어 묵란법을 가르쳤다. 1918년 서화협회를 창립할 때에도 조석진, 안중식 등과 함께 13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흥선대원군과 교분이 두터워 석파란의 대필자로도 이름날 정도로 묵란에 뛰어났다. 그의 묵란은 대원군의 필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유연한 필선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고, 행서와 예서를 잘 썼다.

6. 출품 작품



綠玉鼓中紫玉條 녹옥중중 자옥조
幽花疎淡更香饒 유화소담 갱향요

푸른 떨기 속에 붉은 줄기
꽃은 소담한데 향기는 넘친다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石蘭圖 석란도
19c-20c
124.5 x 33.5cm



懸雲翠壁 현운취벽

三千尺滄露 삼천척읍로

幽蘭四五花 유란사오화

구름 걸린 푸른 벽은 삼천 척이나 되고
이슬 머금은 그윽한 난은 네다섯 송이 피었네.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幽蘭圖 애란도

19c-20c

134.5 x 39 cm



此是幽貞一種華 차시유정일중화
不求聞達只煙霞 불구문달지연하
採樵或恐通來徑 채초혹공통래경
更寫高山一片遮 갱사고산일편차

이것은 그윽하고 끈은 꽃
알려지길 구하지 않고 산노을과 짝할 뿐
나무꾼에게 오는 길 알려질까 두려워
높은 산 그려서 막아 놓았네

- 판교정십 板橋鄭燮(1693~1765)의 시詩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石蘭圖 석란도

19c-20c

133 x 31,5cm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0(소적동 70)
70 Sogyok-dong Jongno-gu Seoul,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幽蘭不 修容 유란불 수용
그윽한 난초는 얼굴을 꾸미지 않는다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墨蘭圖 묵란도
19c-20c
137.5 x 34,5cm



深谷暖雲飛
重巖花發時
非因采樵者
那得外人知

深谷暖雲飛	심곡난운비
重巖花發時	중암화발시
非因采樵者	비인채초자
那得外人知	나득외인지

깊은 골짜기 속에 구름 흩날리고
첩첩한 바위 속에 꽃이 피었네
나물 뜯거나 땀감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외부사람에게 알려지겠는가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崑崙圖 에란도

19c-20c

132 x 33,5 cm

學古齋

Hakgoja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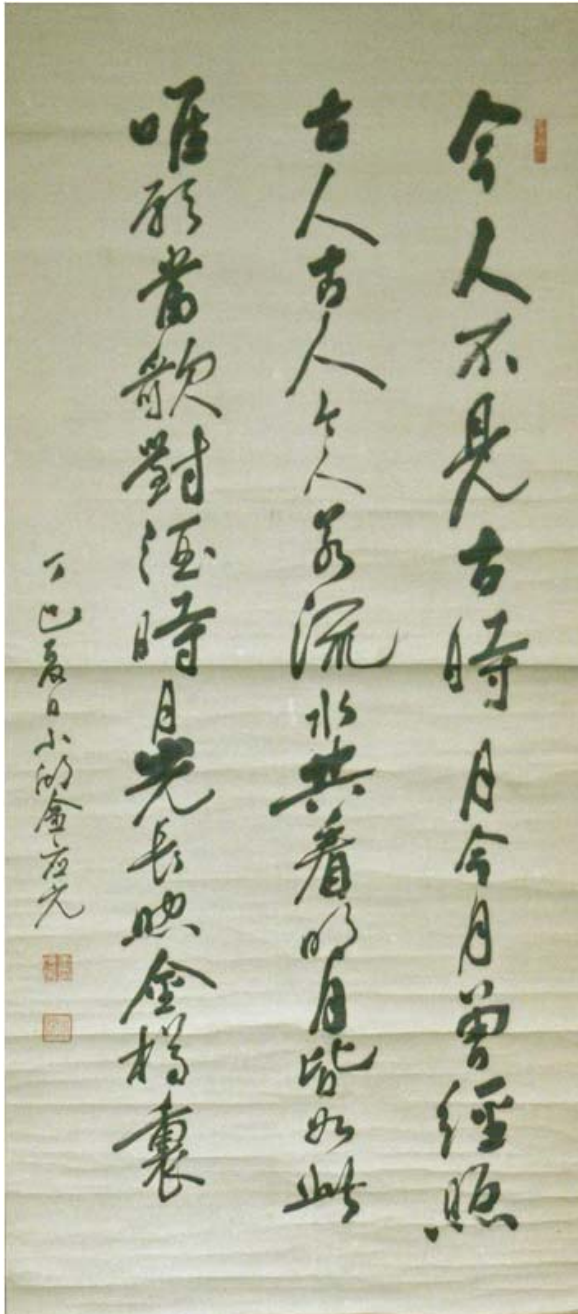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0(소적동 70)
70 Sogyok-dong Jongno-gu Seoul,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山深日長 산심일장
人靜香透 인정향투

산 깊고 해 긴데,
사람 자취 고요하고 향기만 그윽하다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墨蘭圖 묵란도
19c-20c
137.5 x 34,5 cm



今人不見古時月	금인불견고시월
今月曾經照古人	금월증경조고인
古人今人若流水	고인금인약유수
共看明月皆如此	공간명월개여차
唯願當歌對酒時	유원당가대주시
月光長照金樽裏	월광장조금준리

지금 사람 옛 달 못 보았으나
 지금 달 옛사람을 비추었으리
 옛사람 지금 사람 모두 흐르는 물과 같으
 나
 달을 보는 그 마음은 모두 같으리
 오직 바라는 것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에
 달빛이 길이길이 금 술통 비추는 것이라네

-이태백李太白(701-762)의 시詩,
 ‘對酒問月’ 中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七言詩 칠언시

1917년

131 x 58 cm



擷得孤芳從處栽	힐득고방도치재
寫生還向筆端開	사생환향필단개
有聲詩句無聲畫	유성시구무성화
都是心花結撰來	도시심화결찬래

외로운 난초를 구하여 이곳저곳에 심고
 그것을 붓으로 그려본다
 소리있는 시구 소리없는 그림
 이것은 모두 마음속으로 그려낸 것이라네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石蘭圖 석란도
 19c-20c
 95.5 x 34.5 cm



蘭生霽後日 난생제후일
花發夜來風 화발야래풍

난초는 비가 갠 후 싹이 나고
꽃은 바람 부는 밤에 핀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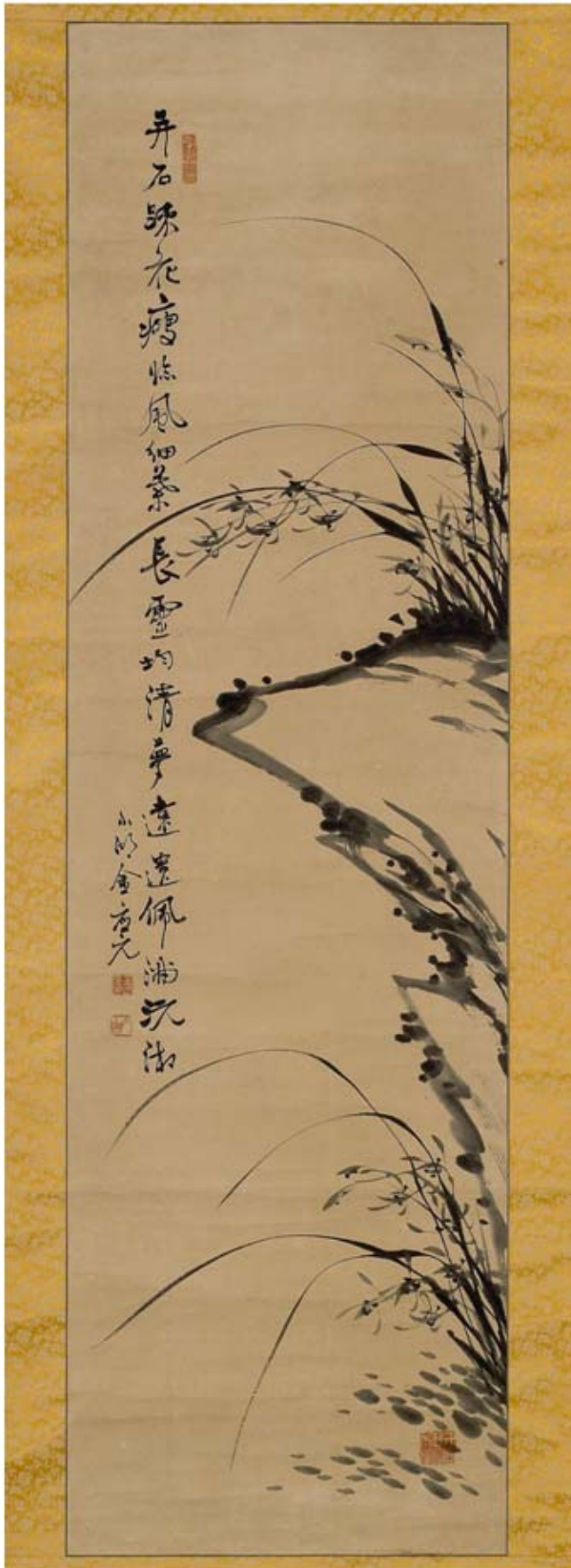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墨蘭圖 묵란도
19c-20c
31 x 30 cm



深林幽寂 秋雨晚
심림유적 추우만
叢蘭猗猗 無所佩
총란의의 무소패

깊은 숲 속 그윽하고 고요한데
늦가을 비가 내리네
한 떨기 난초 무성하지만,
찰 수 있는 사람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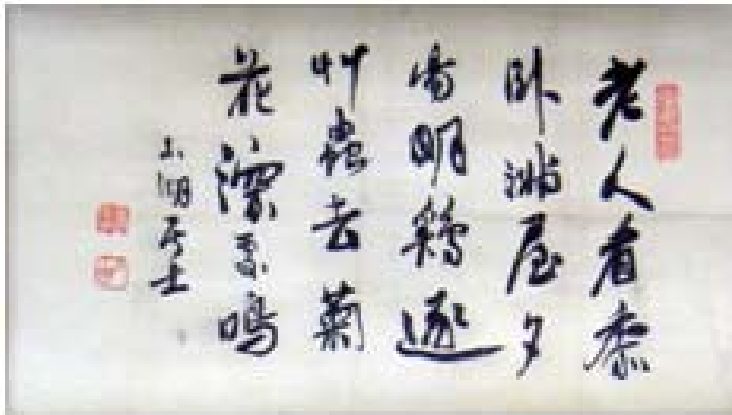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墨蘭圖 묵란도
19c-20c
30.5 x 30 cm



并石疎花瘦	병석소화수
臨風細葉長	임풍세엽장
靈均淸夢遠	영균청몽원
遺佩滿沅湘	유패만원상

돌 걸 성긴 꽃은 파리하고
바람에 날리는 가는 잎, 길게도 자랐구나
영균(靈均, 屈原의 字)이 죽은지 오래라
꽃을 찼 사람 없어서 원상(沅湘, 동정호로
흘러드는 沅水와 湘水, 굴원이 몸을 던진
곳)에 가득 피어있다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石蘭圖 석란도
19-20c
132 x 38 cm



老人看黍臥	노인간서와
滿屋夕陽明	만옥석양명
鷄逐艸忠去	계축초충거
菊花深處鳴	국화심처명

노인이 누워서 기장을 바라보는데
 집에 가득 석양이 밝네
 닭은 풀벌레 쫓아가
 국화 꽃 깊은 속에서 우짖네



有聲詩句無聲畫 유성시구무성화

소리 있는 시구 소리 없는 그림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石蘭圖 석란도

19c-20c

95.5 x 34.5 cm



一醉老翁清興動 일취노옹청흥동
落筆縱橫飛龍鳳 낙필종횡비룡봉
都將妙意寫簞簟 도장묘의사운당
留與時人發吟咳 유여시인발음해

술 취한 노인 흥취가 일어
붓 휘두르자 용과 봉황 나는 듯
신묘한 뜻 감추어 대나무 그려
시인에게 주어서 감상케 하네

海岡 金圭鎮 海岡 김규진

脩竹圖 수죽도

19c-20c

128 x 43 cm



王者德至於天和氣感 王者덕지어천화기감
而甘露降卽竹葦受之 이감로강죽축위수지

제왕의 덕은 하늘도 화평하게 하고
그 기운이 만물을 감동시킨다

단이슬이 내리면 대나무와 갈대도
그것을 받는다

海岡 金圭鎮 海岡 김규진

墨竹圖 묵죽도

19c-20c

132 x 33 cm



瑟瑟涼風	清影散亂	슬슬양풍	청영산란
盡日無事	倚枕閒歌	진일무사	의침한가
如雨秋聲	令人醫俗	여우추성	영인의속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맑은 그림자 흔들리네
온종일 일이 없어 베개 베고 한가로이 노래 부르네
가을비 소리는 비내리는 듯, 사람의 속됨을 치료해주네

海岡 金圭鎮 海岡 김규진

如雨秋聲 여우추성

19c-20c

135 x 33 cm



風骨昂藏夔出塵 풍골양장경출진
儼如佩玉換長伸 엄여패옥완장신

뼈대는 티끌에서 벗어났네
옥주머니를 차고 긴 가지개를 켜는 것 같
구나

海岡 金圭鎮 해강 김규진

風竹圖 풍죽도

19c-20c

135 x 35 cm



說盡瀟湘竹有班	설진소상죽유반
詩人猶豫品題難	시인유예품제난
英皇恐欠多流淚	영황공흠다유루
染得千山幾萬竿	염득천산기만간

소상강의 무늬 있는 대나무는
시인도 품평하기를 어려워 한다네
영황이 눈물을 많이 흘려
모든 산의 수만 줄기 대나무를 물
들게 했네.

海岡 金圭鎮 해강 김규진
竹石圖 죽석도
19c-20c
138 x 41 cm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0(소적동 70)
70 Sogyok-dong Jongno-gu Seoul,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清風逸節 청풍일절
맑은 바람 곧은 절개

海岡 金圭鎮 해강 김규진
風竹圖 풍죽도
19c-20c
128 x 39 cm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정동 50(소적동 70)
70 Sogyok-dong Jongno-gu Seoul,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海岡 金圭鎮 해강 김규진

小湖 金應元 소호 김응원

墨竹圖 묵죽도

19c-20c

141.5x38,5 cm